

# 벤처창업 교육과 창업정신 향상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이 상 문 \*  
장 대 성 \*\*

본 연구는 최근에 한국에서 시작된 창업교육이 창업정신(entrepreneurship)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를 한국과 미국의 한 대학씩을 선정해 비교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조사는 미국·한국의 창업교육 수강자와 비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정신을 MANOVA를 사용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한국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효과가 미국대학생들에 대한 그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의 의미는 미국과 같이 창업교육이 오래 되었고 창업문화가 성숙된 국가보다 한국과 같이 창업교육의 역사가 짧고 창업문화 구축이 잘 안된 국가에서의 창업교육이 창업정신을 훨씬 더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I. 서론

창업교육은 개인에게 창업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벤처기업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주는 창업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병주, 1998). 이러한 창업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박준엽, 1993, 1997; 조병주, 1996, 1998). 미국은 이미 고등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문화가 성숙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년 1월부터는 벤처창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동경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나(조선일보, 2000. 11. 29) 한국에서는 아직 4년제 대학에서만 정규 교과과정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교양과목으로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할 뿐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제도권 교육에서 창업교육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인 건전한 창업정신과 창업문화가 국민적 기반 위에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에도 창업과 창업교육의 열기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대학의 내실이 있는 창업교육을 통해 탄생한 수많은 젊은 벤처기업들이 지난 10 여 년 간 경제성장의 활력소 역할을 해왔던 미국과 그렇지 않은 한국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 Distinguished Professor, Management Department of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USA

\*\*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및 서비스전문대학원 부교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창업교육과 그에 관한 연구의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말에 발생한 IM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사회에서도 창업을 적극 장려해야만 했다. 그 결과 몇몇 성공한 젊은 벤처 기업가들이 탄생되는 한편 취업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어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IMF 전보다 더 제고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장기간 형성된 창업교육환경과 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당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생들의 그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집단의 창업의 관심과 의지 및 자신감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창업문화초기의 국가 대학생들과 창업문화가 가장 성숙한 미국 대학생들과의 창업교육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미국의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으로 향상될 수 있는 창업의지와 자신감 등에 대하여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의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실험집단)과 미 수강 학생들(통제집단) 간의 창업의지와 자신감등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한미 양국 대학생들이 창업 교육을 받음으로써 창업정신이 얼마 더 향상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해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한국 대학생들에게 다른 문화권의 대학생들의 창업의식을 이해시켜 글로벌 창업문화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양국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 방향과 내용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비교분석을 위해 경기대학교 1999년 2학기 경영계열 교양과목인 '창업과 경영'을 수강한 학생들과 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같은 시기에 동일한 연구조사가 미국의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창업정신(Entrepreneurship)

창업정신(Entrepreneurship)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다(Wortman, 1987; Carnier, 1996). Schumpeter(1934)가 처음으로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언급한 이래로 창업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상당히 변화하였다. Drucker(1985)는 창업정신을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Gartner(1985)는 창업정신이란 새로운 조직의 창조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Schumpeter(1934)의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조직을 완전히 구성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경영하는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한다면 창업정신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창업정신은 지속적인 혁신적 창조적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근본적인 원천인 창업정신은 새로운 조직의 창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Carnier, 1996). 급변하는 시장 환경, 신기술의 급속한 개발, 자유무역 등으로 모든 조직은 새로운

비전과 경영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창업정신은 새로운 조직의 창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조직에서 새로운 비전과 경영 방법, 기술 등을 창조해 내는 것도 포함한다(Intrapreneurship).

즉 창업정신이란 신 조직의 창조뿐만 아니라 기존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도 포함한다는 뜻으로 기업은 물론, 사회복지 조직, 스포츠조직 등 모든 조직에서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가져오는 경영철학과 정신을 창업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창업정신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형들과 Dimension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혁신정신, 위험감수, 의지 도전정신이라 할 수 있다(Moon and Peery Jr., 1997). Moon and Peery Jr. (1997)는 창업 정신은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위험을 초과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창업정신의 모형을 만들었다.

$$\text{Entrepreneurship} = F(\text{reward} - \text{risk})$$

Moon and Peery Jr. (1997)의 주장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이 위험을 극복, 또는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면서 무에서 유의 가치를 창조하는 정신이라는 Timmons (1994)의 의견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Moon and Peery Jr. (1997)는 창업에서 위험감수 정신은 투기와는 엄격히 다르다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투기는 무에서 유의 가치 창조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의 의지가 없는 위험감수 라고 한다.

위의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창업정신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면서 그 위험을 극복 또는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면서 혁신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창조정신이라 할 수 있다.

## 2. 창업자

창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창업자는 비 창업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해왔으나 창업자에 대한 정의는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Brockhaus, 1980a, 1980b). 많은 학자들이 창업자가 비창업자와는 다르다고 주장해온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창업자들의 개인적 성격과 배경이 비창업자들의 그 것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Gartner(1985)는 밝히고 있다.

Gartner(1985)는 창업자들이 비 창업가들과 다른 것은 물론 창업자들 간에도 창업자들과 비 창업자들 간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Mckelvy(1982)도 창업자들이 동일 자질의 집단이라는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창업자는 비창업자와 다른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 배경에서 양성될 수 있으며 창업자들 간에도 그들이 성장해 온 배경에 따라 창업에 관한 자질은 물론 창업동기와 목적 등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창업자들의 서로 다른 배경들로 인해 창업자들도 서로 다른 특성들로서 구분 될 수 있다.

Schumpeter(1934)는 창업자를 창조적 파괴과정에 기여하는 리더라고 하면서 경제 시스템에서 새로운 구성요소들을 잘 통합 수행하는 사람을 창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새로운 구성요소란 ①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생산 ② 새로운 생산 방법의 창출 ③ 새로운 시장의 전개 ④ 원료나 부품의 새로운 공급처 장악 또는 ⑤ 기존산업의 새로운 재구성 등을 말한다.

또한 Schumpeter(1934)는 창업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조직하여 수행하는 최고경영자들만이 아니라 맡은 바 직분 및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내의 근로자들도 창조적 파괴에 참여 및 기여하고 있으면 창업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Camier(1996)도 조직 내에서 창조행위도 창업이라고 강조하여 Schumpeter(1934)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Kirzner (1985)는 창업자란 이익의 기회를 감지하고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보충시켜주는 선두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night (1921)는 불확실성의 회피 기질이 아주 적은 사람 즉 불확실성의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chumpeter(1934)의 주장처럼 새로운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벤처를 조직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창업정신으로 조직을 경영하지 않으면 창업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부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창업자라고 볼 수 없고 부를 획득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창조적 파괴와 불확실에 도전하는 자를 창업자라고 할 수 있다.

Watson(1998)은 개인적 배경, 창업의 동기함양, 성장 등이 창업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보았다. Morrison(1999)은 창업가가 속한 사회와 문화를 창업가정신의 발현의 기초로 보았다. Lee & Peterson(2000)은 건전한 사회적 환경, 좋은 재정적 지원상태 그리고 창업자들의 질 좋은 경험 등이 기초가 되어 동기 부여된 창업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 창업자들이 속한 국가가 창업정신을 양양시키고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국가적 창업문화가 없다면 경쟁력 있는 창업가들이 배출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Watson(1998)과 Morrison(1999)의 의견에 의하면 성공할 수 있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적 기질을 보유했어야 함은 물론 창업의 동기와 다양한 학문적 욕구가 함양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Lee & Peterson(2000), Watson (1998)과 Morrison(1999)의 연구들이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훌륭한 창업가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창업가가 양성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교육을 통해 성장될 수 있다 것이다.

### 3. 창업교육과 창업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자는 여러 면에서 비창업자와 다르다. 그러면 창업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 자질이 타고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Gartner (1985)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많은 학자들이 창업자는 개인적 성격과 개인적 배경에 의해서 비창업자와 다르다고 한다. 더욱이 창업자들 간에는 더 다양하게 다르다고 한다. 이는 창업자의 자질이 후천적 환경과 교육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성격과 품성 및 능력은 교육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개인적 성장배경이라는 후천적 환경에 따라 사람의 능력은 물론 의지 및 동기부여 등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업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성장 배경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 간에도 다양함이 많이 존재하고 똑 같은 창업자는 없다고 한다(Mckelvy, 1982). 창업자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창업자를 비창업자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배경들은 다음과 같다(Gartner, 1985).

- |           |                  |
|-----------|------------------|
| ① 직무만족    | ② 과거의 직장 및 사업 경험 |
| ③ 창업자인 부모 | ④ 나이             |
| ⑤ 교육      |                  |

위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분명 교육이 창업자와 비창업자의 자질을 구분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가정교육이 한 인간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부모가 창업자인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교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현대의 많은 기업들은 사내는 물론 사외 교육도 중요시 여기고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 경험의 일부도 넓은 의미에서 교육의 범주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5가지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들 중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은 물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병주(1998)도 창업자는 태어나는 것이며 후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창업교육은 무의미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에 의하면 창업관련지식이나 기술은 개인에게 창업을 하려는 동기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창업교육은 창업의지를 촉진시킨다고 한다. 그러므로 창업가에 대한 개념은 타고난다는 개념과는 다르게 인식되어야 하며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활동이 촉진되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Timmons (1994)는 기술적 배경을 가진 창업가가 모든 경영지식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 창업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팀을 구성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창업을 위한 여러 역량들은 팀 워크숍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어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Timmons(1994)는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 및 인프라 조성도 중요하지만 창업교육을 통해 이들의 창업의지의 양상은 물론 창업준비 과정 및 기업성장과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대 필수적이다. 특히 예비 창업가들인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창시절은 계획된 준비 기간이어야 하므로 창업교육 및 현장과 연계된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배종태, 1998). 나아가 창업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창업학습을 실시하면 창업을 지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의 동기부여는 물론 창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Timmons(1994)는 창업의지가 있고 창업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창업에는 나이와 학력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성공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창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올바

른 창업정신을 제고시키고 창업의 시작과 성장과정, 자원관리와 팀 관리, 사업계획, 마케팅 등 창업경영 방법을 제대로 교육한다면 이들에게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다.

#### 4. 미국 대학에서 창업교육 현황

미국의 경우 60년대 말부터 시작해 그 후 창업교과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창업분야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창업론'과 '중소기업 경영론' 등의 창업관련 교과목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을 전공으로 설치하는 대학과 대학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Solomon, Fernald and Weaver, 1993; Timmons, 1994). 미국에서 개설되고 있는 교과과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bson College는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중심으로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창업 전·창업 시·창업 후의 3단계로 교과과정을 재편하였고, 현재 필수과목 3과목을 포함하여 창업가 정신 분야의 교과목만도 12개를 개설하고 있는 등 다양하게 학부과정은 물론 MBA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MIT에서는 MBA 과정의 하나로 '신상품 및 벤처개발(new product and venture development)'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과목은 2개를 포함하여 11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이외에도 1,000개 이상의 경영대학원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또는 '벤처경영(venture manage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배종태, 1998). 미국의 장기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한 창업교육으로 인하여 1987년도의 미국 대학 신입생의 46%가 졸업 후 창업을 원했다(Timmons, 1994). 또한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창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Ewing Kauffman's 창업 연구센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992년도 자료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우 석사과정 졸업생(MBA)의 90%가 자영업을 창업하고 싶다고 하였고 졸업한지 10년 된 졸업생들의 많은 수가 10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1/3정도가 스스로 창업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다(Timmons, 1994). 이는 한국의 일류대학교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근무하기 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사실이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미국의 창업 교육과 문화는 지난 20년 간 마이크로 소프트, 오라클 및 델 컴퓨터 등의 많은 세계적인 벤처기업과 36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생시켰다. 또한 이들 새로운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산출을 통해 미국 국부를 증가시킴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Timmons, 1994).

#### 5. 한국 대학에서 창업교육 현황

미국에 비하여 한국의 창업 교육의 역사는 아주 짧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소수의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교육하기 시작했고 교육내용을 보면 일반 소자본 창업에 중점을 두었다(박춘엽, 1993).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에서 컨설팅회사, 은행 등의 공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실무중심의 단기강좌를 활발히 개설하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박춘엽, 1997).

KAIST에서는 1993년부터 대학원과정으로 기술 창업론을 개설하고 있고 1998년부터는 학사과정 대상으로 벤처경영론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대학들에서 벤처경영에 관심이 있는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벤처 및 창업관련강의가 늘어나고 있다(배종태, 1998). 이러한 추세에 따라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인하대의 경우 1999년 첫 교양과목으로 채택된 '벤처기업론'은 1999년 2월 26일 수강신청 접수 첫날에 정원 400명이 마감돼 이 학교 200여 개 교양선택 강좌 중 학생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인천대도 1999학년도 1 학기에 새로 개설한 '무역과 창업경영' 등의 강좌도 정원 60~100명을 단숨에 채우며 인기과목 대열에 새로이 들어섰다(중앙일보, 1999. 3. 2)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창업 강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서도 창업 강좌를 개설하는 곳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중앙일보, 1999. 3. 2).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경영 및 창업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 분야의 전공자를 위한 진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정화·이명자, 1998). 한편 한국 정부는 1998년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벤처비즈니스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모두 1천9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학교 기업은 대학별 육성계획 공모를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 받게 되며 성공을 거둬 융자금을 상환하는 정도에 따라 확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융자 상환액은 해당 대학이 새로운 학교기업에 재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문화일보, 1999. 3. 13). 이렇게 대학 내의 창업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대학은 물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이와 학력에 제한 없이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권 교육시스템에서는 이제 겨우 4년제 대학에서만 창업에 대한 기초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숭실대와 호서대 등 2개 대학만이 1999년 1학기부터 창업에 관한 전공을 개설하여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특히 호서대에서 벤처 전문대학원이 1999년 1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하여 벤처전문교육의 성공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2년제 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창업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2년제 대학생들은 물론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 있고 그들도 창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중요함에도 한국 제도권 교육에서 이들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 6. 한국에서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

창업을 하려면 먼저 창업정신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창업 방법을 모른 상태에서 맹목적인 창업의지만 갖고 창업을 한다면 그 것은 매우 무모한 창업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창업 교육이 없이는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의지가 발생될 수 없고 그릇된 의식과 의지로 인한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국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한국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창업자들 중에 창업준비에 창업교육을 활용한 사람들이 불과 4%밖에 안 되는 반면 주변사람의 도움을 활용한 사람들은 무려 58% 이었다(중앙일보, 2001년 6월 27일).

이는 한국사회에 많은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조사 분석되지 않았지만 창업자들의 창업교육 활용도가 낮은 것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창업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한국인들의 학습의욕이 부진 또는 위의 두 가지의 원인이 모두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여 한국 창업지망생들에게 올바르고 충실한 내용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Schumpeter(1934), Timmons(1994)와 Carrier(1996) 등이 주장한 것처럼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는 자만이 창업자가 아니고 조직 내의 신규사업을 계획 및 시행하거나 창조적 파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창업자라고 한다면 졸업 후 자기의 사업체를 창업할 대학생들은 물론 기업 및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할 대학생들도 모두 예비 창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창업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고 이들 연구는 대부분 창업 교육의 필요성(박춘엽, 1993), 교과 내용 및 전공과정 개발(조병주, 1996), 창업 교육 실태(1998, 한정화, 이명자), 교수방법 및 교육방향(조병주, 1998) 등에 관한 것이다. 한편 한정화, 이명자(1998)는 창업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업교육효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1998)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간단한 빈도분석만으로 교육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층 분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창업 교육과 그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매우 일천하다.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 형성된 대학가의 창업분위기는 창업교육환경과 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당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및 다른 선진국 대학의 그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학생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는 물론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창업교육이 성공한 외국과 한국의 창업교육 비교연구는 꼭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거의 없는 상태이다.

### Ⅲ. 연구조사 방법

#### 1. 표본 집단

본 연구는 1999년도 2학기 미국의 University of Nebraska - Lincoln 캠퍼스에서 창업경영(venture creation management)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과 미수강 학생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한국의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동일과목을 수강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정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1999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창업과 경영’을 수강한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수강생(102명)과 미수강생(115명), 같은 시기의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캠퍼스의 창업경영 수강생(60명), 미수강생(102명)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한 의지와 관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양국의 표본추출 대상 학교

##### (1) 경기대학교

한국의 수도권(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수 약 13,000명의 종합대학교로서 2001학년도 경영학부학생들의 한국 수능시험 평균점수가 400점 만점에 362점이다. 이 수능 점수는 한국의 전체 대입 응시자들 중에서 80 percentile 이상이다. 경기대학교는 1999년 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우수 대학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앞서 경영학부는 1996년 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우수 경영학부로 평가받았다. 이에 경기대학교 경영학부가 한국 대학의 경영학부를 대표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 (2) The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를 대표하는 전체 학생수 약 24,000 명의 미국의 전형적인 주립대학교이며 경영대학은 AACSB 인정학교이며 2001년도 USA Today지에 미국 내에서 57위로 순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의 경영대학은 미국을 대표하는 경영대학이라 해도 큰 무리는 없다.

#### 3. 설문지 배부

한국의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와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에서 배부된 설문지의 내용은 같다. 배부는 모든 표본 집단에게 1999년 2학기 종강 시(1999년 12월초)에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수업시간 중에 배부하여 회수하였기 때문에 배부한 설문지는 전량 회수되었다. 배부 대상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창업과 경영” 수강자 102명 미수강자 115명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창업과 경영” 수강자 60명 미수강자 102 명이다.

#### 4. 자료 분석 방법

회수한 설문지의 응답한 내용이 성실하여 모두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양국 학생들로부터 회수한 설문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설문 항목들을 요인 분석하고 추출된 요인들을 창업 교육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요인들을 사용하여 창업교육을 받은 한국의 수강생집단과 미수강생 집단, 창업교육을 받은 미국의 수강생집단 과 미수강생 집단, 창업 교육받은 한국의 수강생집단과 미국의 수강생집단 그리고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한국의 미수강생 집단과 미국의 미수강생 집단 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로 하였다. 분석에는 MANOVA를 사용하였다.

#### 5. 창업교육에 의해 향상될 창업정신과 관련된 변수들

Watson(1998)에 의하면 창업 성공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창업에 대한 동기 함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Clark et al(1984)과 조병주(1998)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교육으로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창업에 관한 개념과 지식이 올바르게 교육되면 창업에 관한 인식이 바뀌면서 창업 정신이 고취되면서 창업의지와 욕구가 발생되고 그에 따라 창업에 관한 지식을 더 습득하기를 원하는 물론 팀워크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될 것이다(Timmons, 1994). 이와 함께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도 증가 될 것이다(한정화, 이명자, 1998).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창업교육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는 창업의지와 욕구, 창업에 대한 지식, 창업학습의욕 및 창업에 대한 자신감 및 능력 등에 대한 설문을 16문항을 만들어 미국대학생들에게는 영어로 및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배부하였다. 이들 항목들에 대한 측정은 5 점척도(1: 매우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하였다. 16개의 설문항목들 중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 항목들을 요인 분석하였다. 16개의 항목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16개 항목들 모두 창업 교육효과로 나타나는 창업의지와 자신감 및 능력의 변수들로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기는 너무 많아 우선 요인 분석을 하였다.

설문항목들은 다음과 같고 요인 분석결과는 <표 3-1>과 같다.

1. 대학생 시절에 꼭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다.
2. 창업 교육은 고등학교에서부터 실시해야 한다.
3. 창업은 동업을 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혼자 하는 것이 팀을 이루어 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창업에 관한 지식이 있다.
5. 나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할 능력이 있다.
6. 나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한다면 그 업종은 내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다.
7. 나는 내가 창업을 한다면 자금조달 및 인력 조달 등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창업에 관심이 있고 취직보다 창업을 하고 싶다.
9. 우리학교에 벤처 창업 전공이 있다면 전공을 벤처창업 경역으로 바꾸겠다.
10. "창업과 경영" 과목이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 나는 만약 내가 창업을 한다면 처음에는 몇 번 실패하더라도 언제고 꼭 성공을 할 자신이 있다.
12. 나는 나의 앞으로의 인생 길에는 오로지 창업해서 성공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꼭 창업을 해서 승부를 걸겠다.
14. 나는 창업을 한다 해도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고 외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겠다.
15. 나는 창업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좁은 한국보다 넓은 세계를 향해 사업을 하겠다.
16. 나는 독특하고 특출한 재능이 있다.

<표 3-1> 요인분석 결과

요인 명	아이겐 값	변수 명	요인 적재치	요인 개념의 조작적 정의
1	5.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시절의 창업의지</li> <li>• 창업자금 조달 자신감</li> <li>• 취직보다 창업의지가 높음</li> <li>• 창업으로의 전공을 전환의지</li> <li>• 창업시 성공에 대한 자신감</li> <li>• 창업만이 길길</li> <li>• 창업에 대한 주변반대 극복의지</li> </ul>	.766 .582 .800 .737 .669 .728 .598	창업의지와 자신감
2	2.0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에 관한 지식</li> <li>• 직접창업 능력</li> <li>• 업종선택 능력</li> <li>• 독특한 재능</li> </ul>	.824 .688 .499 .789	창업지식과 능력
3	1.6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창업보다 팀 창업 선호</li> <li>• 외국을 대상으로 창업</li> <li>• 외국을 대상으로 사업</li> </ul>	.464 .895 .773	팀 워크숍과 해외진출의지
4	1.0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부터 창업교육이 중요</li> <li>• 창업과 경영과목이 창업에 도움</li> </ul>	.708 .618	창업교육의 중요성 인식

요인분석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 4개의 요인들을 창업교육요인 창업의지 및 자신감과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로 사용하였다. 그 4개 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그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의지와 자신감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와 의지를 일으키고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Clark et al., 1984; 조병주, 1998)은 창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의지가 향상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정화, 이명자 (1998)연구에 의하면 간단한 빈도분석이지만 창업 교육 후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증가가 주요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2) 창업에 관한 지식과 능력

Timmons (1994)는 창업의지가 있고 창업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성공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창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창업의 시작과 성장과정, 자원관리와 팀 관리, 사업계획, 마케팅 등 창업경영의 지식을 제대로 교육한다면 이들에게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다고 한다. 즉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지식이 획득되면 창업에 대한 능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3) 팀 워크숍과 해외진출 의지

창업을 위한 여러 역량들은 팀 워크숍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Timmons (1994)는 주장하고 있다. 해외 진출의 창업은

혼자하기 어렵고 팀워크의 선호와 의식의 개방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팀 워크쉽과 해외진출의지로 정의되었다.

(4) 창업 교육의 중요성 인식

창업 교육을 받으면 창업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이 향상됨을 지각할 것이다. 그러한 지각을 통해 창업 교육을 받으면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할 것이다.

## IV. 자료 분석 결과

### 1. 요인들의 상관관계분석

한국 학생집단과 미국학생집단에 대하여 창업의지 및 자신감과 능력과 창업교육의 중요성 인식등의 4개의 창업정신과 관련된 요인들을 변수로 사용하여 MANOVA를 실시하기 전에 이 4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4-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들 4개의 요인들 중 팀워크쉽의 해외진출의지를 제외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3개의 요인들이 두 집단의 창업의지 및 자신감과 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MANOVA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팀워크쉽의 해외진출 의지는 MANOVA와 별도로 두 집단간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4-1>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표

	창업의지와 자신감	창업지식과 재능	개방성	창업교육의 중요성 인식
창업의지와 자신감	1.000	0.463	-0.009	0.314
창업지식과 능력		1.000	-0.094	0.414
팀워크의 해외진출의지			1.000	0.048
창업교육의 중요성인식				1.000

### 2. 3개 요인들에 대한 MANOVA

(1) 미국 수강생집단과 미국 미수강생 집단

MANOVA 실시 전에 두 집단의 동분산 분석 검증을 위해 Box's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4-2>와 같이 유의하지 않아 MANOVA 실시에 문제가 없다. MANOVA 실시 결과아래 <표 4-4>에 의하면 미국 학생들의 수강생 집단과 미 수강생 집단 간에는 창업의지 및 자신감과 능력에 대하여  $\alpha=0.05$ 에서 유의하지 못하고  $\alpha=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5>에 의하면 이 두 집단의 창업정신과 관련된 변수들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기여하는 변수는 “창업의지와 자신감” 그리고 “창업지식과 능력”이다. 즉 미국대학생들은 창업 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창업정신변수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업 교육을 받은 집단이 “창업의지와 자신감”에서는 많은 향상을 하였으나 “창업지식과 능력”에서는 약간 향상되었음을 <표 4-3>이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창업교육의 중요성인식은 두 집단 간 구별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다.

<표 4-2> Box's M test

Box's M	4.238
F	.689
Sg	.659

<표 4-3> 미국 수강생집단과 미국 미수강생 집단 간의 요인별 평균값 비교

요 인	집 단	평 균	표준 편차	표본수
창업의지와 자신감	미국 수강집단	2.9948	.7925	55
	미국 미수강 집단	2.6349	.7045	90
창업지식과 능력	미국 수강집단	4.0000	.5833	55
	미국 미수강 집단	3.8222	.5772	90
창업교육의 중요성인식	미국 수강집단	4.0000	.6667	55
	미국 미수강 집단	4.0000	.5457	90

<표 4-4> Multivariate Tests

Effect	Value	F	Hypothesis of	Error of	Sg
Hotelling's Trace	.062	2.154	4.000	140.000	.077*

\* α=0.1에서 유의함

<표 4-5> Test of Between-Subjects Effects

Dependent Variables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g
창업의지와 자신감	4.421	1	4.421	8.097	.005
창업지식과 능력	1.079	1	1.079	3.212	.075
창업교육의 중요성	.000	1	.000	0.000	1.000

(2) 한국 수강생 집단과 한국 미수강생 집단

MANOVA 실시 전에 두 집단의 등분산 분석 검증을 위해 Box's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4-6>와 같이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나 두 집단의 표본 크기가 같아 MANOVA 실시에 문제가 없다.

<표 4-7>은 한국의 수강생 집단이 미수강생 집단보다 세 변수에서 모두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아래 <표 4-8>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의 수강생 집단과 미수강생 집단 간에는 창업정신에 있어서 α=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9>에 의하면 이 두 집단의 창업정신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기여하는 변수는 창업의지와 자신감, 창업지식과 능력 그리고 창업교육의 중요성인

식의 3개 요인 모두이다. 즉 한국대학생들은 창업 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창업 교육을 받은 후 창업정산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창업 교육을 받은 집단이 창업의지와 자신감, 창업지식과 능력 그리고 창업 교육의 중요성 인식 모두에서 괄목할 만하게 향상되었음을 <표 4-7>이 보여 주고 있다.

<표 4-6> Box's M test

Box's M	22.738
F	3.738
Sig	.001

<표 4-7> 한국수강생집단과 한국미수강생집단간의 요인별 평균값 비교

요 인	집 단	평 균	표준 편차	표본수
창업의지와 자신감	한국 수강집단	3.2945	.6437	98
	한국 미수강 집단	2.7105	.6928	112
창업지식과 능력	한국 수강집단	3.4325	.5531	98
	한국 미수강 집단	2.8929	.6329	112
창업교육의 중요성인식	한국 수강집단	4.0255	.6667	98
	한국 미수강 집단	3.2723	.7766	112

<표 4-8> Multivariate Tests

Effect	Value	F	Hypothesis of	Error of	Sig
Hotelling's Trace	.416	21.316	4.000	205.000	.000**

\*\* α=0.01에서 유의함

<표 4-9> Test of Between-Subjects Effects

Dependent Variables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창업의지와 자신감	17.826	1	17.826	39.664	.000
창업지식과 능력	14.716	1	14.716	41.285	.000
창업교육의 중요성인식	29.651	1	29.651	61.593	.000

<표 4-3>과 <표 4-4>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국의 수강생 집단과 비 수강생 집단간의 창업교육효과에서 차이가 있긴 있으나 유의도가 α=0.1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α=0.01에서도 유의적이다. 특히 창업교육의 중요성인식은 미국의 두 집단 간 구별에 유의한 기여하지 못했으나 한국의 두 집단 간 구별에는 유의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은 창업교육을 실시한지가 오래되고 창업문화가 성숙되어 있어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창업교육 수강과 관계 없이 인식하고 있고 한국은 창업교육을 실시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창업문화가 미 성숙되어 창업

교육을 받기 전 집단은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교육을 받은 집단은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한국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미국에서 그 것보다 훨씬 더 교육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MANOVA 분석결과의 요약

다음 <표 4-10>과 <표 4-11>은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의 수강집단과 비수강집단에 대해 창업정신과 관련된 변수들의 차이를 비교 요약한 것이다.

<표 4-10> 미국학생집단의 비교

창업의 의지와 자신감	창업지식과 능력	창업교육의 중요성인식
수강 > 미수강	수강 > 미수강	수강 = 미수강

<표 4-11> 한국학생집단의 비교

창업의 의지와 자신감	창업지식과 능력	창업교육의 중요성인식
수강 > 미수강	수강 > 미수강	수강 > 미수강

3. 팀워크의 해외창업의지

다음 <표 4-1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 대학생들이 팀워크의 해외창업의지가 미국 대학생들의 그 것보다 창업경영 미 수강집단, 수강집단 모두에서 더 높았다.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대학생들 모두에게서 수강한 집단과 수강하지 않은 집단에서 팀워크의 해외창업의지는 같았다. 즉 창업경영 강의로 인한 “팀워크의 해외창업의지”에 대한 교육효과는 두 집단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2> 한국과 미국의 두 집단 간 팀워크의 해외창업의지 비교

한국의 두 집단 비교		미국의 두 집단 비교	
F	Sg	F	Sg
1.262	.112	3.608	.701

<표 4-13> 한국과 미국의 두 집단 간 팀워크의 해외창업의지 비교 (평균 값)

집단	평균 값	St.D.	표본수
한국 수강	3.7925	.6083	98
한국 미수강	3.6637	.5525	112
미국수강	3.318	.8423	55
미국 미수강	3.433	1.6675	90

그러나 두 국가 학생들 집단의 평균 값을 보면 한국 학생집단이 미국학생 집단보다 팀워크의 해외창업의지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종 자원이 풍부한 미국과 달리 자원 빈국인 한국의 정부가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한 이후 지금까지 수출보국만이 한국의 국가 생존의 방법임을 초등학교 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학생 집단은 창업교육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사업이 한국인으로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선행연구들은 창업자는 태어나기보다는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고 양성된다고 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창업자의 양성 과정에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 경험, 그리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의 창업자들인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에 대하여 창업에 대한 문화와 사회적, 교육적 배경이 서로 다른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창업교육이 미국보다 학생들의 창업에 관한 의지와 자신감 그리고 창업교육의 중요성 인식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더 높은 교육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학생들에 비해 창업에 관한 지식이 없던 한국학생들이 창업 교육을 통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이 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창업교육의 중요성은 미국대학생들은 수강 전 집단이나 수강 후 집단이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는데 한국학생들은 수강 후 집단에게 그 인식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일천한 창업문화와 열악한 창업교육환경으로 인해 창업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 창업 지식 수준 그리고 창업교육의 중요성 인식 수준이 미국학생들에 비해 부족한 한국의 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시키면 미국과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의 창업의지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창업교육의 중요성은 미국대학생들은 교육 전 집단이나 교육 후 집단이나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나 한국대학생들은 교육 후 집단이 교육 전 집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팀워크의 해외창업의지는 수출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천인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수강 집단, 수강 집단 모두에서 미국 대학생들보다 높았다. 그러나 양국 학생집단 모두에게서 그 변수에 대한 교육효과는 없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인 한국 및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국가, 사회, 문화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위의 창업교육효과와 관련된 변수들이 창업 교육 전은 물론 창업교육 후에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효과가 미국대학생들에 대한 것보다 크다. 이 분석결과의 또 다른 의미는 미국과 같이 창업교육이 오래 되었고 창업문화가 성숙된 국가보다 한국과 같이 창업교육의 실시가 얼마 안되었고 창업 문화의 형성이 잘 안된 국가에서의 창업교육의 효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 참고문헌

- 박춘엽(1993), “한국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실태연구: 강좌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15권 제2호, pp. 79-114.
- 박춘엽(1997), “한국과 미국의 창업지원체계의 비교: 벤치마킹식 접근”, 중소기업연구, 제19권 제1호, pp. 251-277.
- 배종태(1998), “기업가정신 및 벤처경영에 관한 교육과정개발”,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2호, pp. 156-180.
- 조병주(1998), “창업교육: 교육과정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 27-47.
- 조병주(1996), “창업교육의 교과내용 결정모형과 전공과목의 개발방향”, 한국중소기업학회지, 제18권 제2호, pp. 159-171, .
- 조선일보, 「일본 창업교육은 고등학교부터」 2000. 11. 29
- 한정화·이명자(1998), “한국의 창업교육실태와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 5-26.
- Brockhaus, R. H.(1980a), “The Effect of Job Dissatisfaction on the Decision to Start a Busi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18, No. 1, pp. 37-43.
- Brockhaus, R. H.(1980b),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3, pp. 509-520.
- Camier, C.(1996), “Entrepreneurship in Small Business: An Exploratory Stud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pp. 5-20, Fall.
- Drucker, P. F.(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Haper & Row.
- Gartner, W. B.(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0, No. 4, pp. 696-706.
- Gartner, W. B.(1989),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12, No. 4, pp. 11-22.
- Kirzner, I. M.(1985), *Discovery and the Capitalist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night, F.(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Boston: Houghton-Mifflin.
- Lee, Sang M and Peterson, Suzanne J.(2000), “Cultur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Global Competitiveness”,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35, No. 4, 401-416.
- McKelvey, B.(1982), *Organizational Systematics - Taxonomy, Evolution, Classifi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nison, Alison(1999), “Entrepreneurship: What Triggers IT?”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 6, No. 2.
- Moon, H. C. and Peery, Jr. N.(1997), “Entrepreneurship in international Business: Concept”, *Strategy and Implementation, Entrepreneurship*,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Solomon, G. T., L. W. Fernald Jr. and L. M. Weaver(1993), "Trends in Small Business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 : An Update,"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Proceedings, 38th World Conference, Las Vegas, Nevada, U. S. A., pp.230-242.
-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Entrepreneurship for the 21stCentury",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 Wortman, M. S.(1987), "Entrepreneurship: An Integrating Typology and Evaluation of the Empirical Research in the Field", Journal of Management, Vol.13, No.2, pp.259-270.
- Watson, K, Hogarth-Scott, S., and Nicholas Wilson(1998), "Small Business start-ups: Success Factors and Support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4, No.3, pp. 217-239.

## A Comparative Study on Venture Creation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between Korea and USA

Sang M Lee \*  
Daesung Chang \*\*

### <Abstract>

During the past two decades, entrepreneurship has become one of the mainstream business disciplines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recent financial crisis in Asia, dotcom phenomenon, the exploding e-business around the globe, a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being created by new advance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widely popularized entrepreneurship for new venture creation. While entrepreneurship is becoming popular around the world, its education in each country is different based on its cultural context.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n entrepreneurship study on the pedagogical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n the U.S. and Korea.

▶ Key words : Entrepreneurship education ; Comparative study of entrepreneurial culture ;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creation.

---

\* Distinguished Professor of Management,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NE 68588-0491, U.S.A.

\*\* Professor of Operations Management,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442-760